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말씀 : 베드로후서 2 : 1~22

요절 : 베드로후서 2 :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다같이 1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1) 이 말씀은 1 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된 내용으로 1장 20 절부터 연결해서 해석해야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같이 1 장 20절에서 2장 1a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벧후 1:20~2:1a) “Knowing this first, that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For the prophecy came not **in old time** by the will of man: but holy men of God spake as they were moved by the Holy Ghost. But there were **false prophets** also among the people, even as there sha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2 Peter1:20~2:1a)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17번, 베드로후서에서는 13번 모두 30 번 (구약)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다섯 절마다 한번 씩 구약말씀을 인용한 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한 참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실족케 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신13:1~3a) 선지자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도리어 백성을 미혹하고 실족시켰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렘2:8) 하나님은 이들 선지자들의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짚주릴 것이라”(사8:20,21)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펁박과 배척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었고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둘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끝

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렘23:11~17) 무릇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알 곧 이방신, 물질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 중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설교를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에 내적치유와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쪽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희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렘23:15~20)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1 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a 절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1a) 구약 백성 즉,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심판받을 죄가 무엇입니까? 1b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1b)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

님을 말로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은 별로 없습니다. 이단들도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말을 버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감동적인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요 목자요 설교자인데 삶이 바르지 못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2,3)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특징은 호색(pernicious)과 탐심(covetousness)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색(好色)이란 여색(女色)을 좋아하여 방탕한 것을 말하는데, KJV에서는 ‘악질적인, 치명적인, 해로운’이라는 pernicious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방탕과 호색, 탐심 등 육체의 소욕대로 죄 가운데 행함으로서 진리의 도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b 절에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3b) 하십니다. 즉, 이러한 사례들이 옛적부터 있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예외 없이 그러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성경의 사례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처한 예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4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4) 유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최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맡은 역할과 직분,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반하며 전령의 일, 수행자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뵈옵고 또 섬기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자기 처소를 이탈했다는 것은 천사로서 교만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천사가 영광의 광채 속에 좌정하시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을 가까이서 모시며 수반하다 보니 자기도 그 영광을 누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영광을 구하여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의 타락과 범죄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사14:12~15)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초래하는 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운데서 겸손히 엎드려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영광을 구하라고 속삭입니다. 충분히 교만할 만 하다고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속입니다.

둘째, 노아시대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5 절을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5) 노아와 그 식구 여덟 명만이 그 시대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았을 뿐 그 시대의 온 나라 백성들과 온 지면의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불순종하였으며 자기 욕심을 죽이 살아 살았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노아는 그 시대의 이단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이상자, 외톨이, 특이한 친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수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시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타협하셨습니까? 심판의 기준을 조금 낮추어서 그 시대 절반만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을 제외한 당시 모든 사람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세상의 판결과 평가는 상대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심판을 예비한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외면한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경건한 노아와 경건치 않은 그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순종치 않고 자기계획, 자기욕심, 세상을 죽이 살아 살았는가에 달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아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심판을 경고하지도, 죄를 지적하여 회개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죽이 살아 살면서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셋째,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다같이 6~8 절을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봇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6~8)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무법천지였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동성연애는 심각합니다.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발의 된 이후 여러 번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기독교계에서 반대운동을 하여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온갖 범죄와 불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롯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과거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다가 양떼가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가자 삼촌 집에서 분가해 나갑니다. 롯은 풍요롭고 비옥해 보이는 평야지대를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산지에 남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죄악 된 소돔고모라에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7,8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7,8) 롯은 불의한 도시에 살면서 소돔의 음란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서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우리도 불신 세상에서 보고 듣고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의로운 심령도 상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육은 범죄 하지 않기 위해 자기 눈을 삼가고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위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눈으로 여인을 보자, 그의 마음에 정욕과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경건한 자들과 늘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발람의 길을 쫓아간 자들입니다. 9~19절은 사도 베드로가 발람의 예를 들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의 길을 쫓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15,16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죄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15,16)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채우고 마침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흔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진 때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죽지세와 같은 승전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발락은 이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므로 처음에는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예물이 탐나서 억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발락에게로 가라는 응답을 받아 냅니다. 마침내 발람은 불의의 삿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2~25장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갔으나,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발람은 네 번에 걸쳐 예언을 하는데 모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그 날에 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31:16 절에서 기록하기를 이 사건은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말해 주어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칼로 죽이셨습니다. 발람은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네 번씩이나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 하여 하나님의 진노아래 들어가도록 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와 삿꾼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삿꾼이 양을 치는 목적은 삿을 받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저는 우리 UBF 목자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목사라든가 신학박사라든가 하는 타이틀을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사례비를 목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 짚음과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양 무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브올의 아들 발람을 교훈 삼아 변함없이 순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운데 칼에 죽임당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술로

는 축복하였으되 그들을 범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조건 ‘복 받아라’ ‘복 받아라’한다고 그것이 축복의 설교가 아니고, ‘저주 받으리라’ ‘재앙이 있으리라’한다고 그것이 저주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설교가 축복의 설교입니까? 백성으로 악에서 돌이 키게 하는 설교가 진정한 축복설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 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경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 곧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서 사단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 못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끊었던 뱀 곧 사단 마귀의 자식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노아시대에도,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백성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발람의 길로 인도 하며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다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앓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얹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20)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 생활로부터 새 삶을 입게 됩니다. 무지와 영적 어둠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섬기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뜻과 욕심을 쫓아 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내 생명과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헛된 우상과 귀신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던 데서 이제는 생명의 주님 안에서 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다시 그 중에 얹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구원의 빛을 본 자가 다시 과거의 죄악 된 생활로 돌아간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월 곳을 얻지 못하고 그 나온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죄에 넘어지게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잘 섬기던 자가 다시 과거의 어둠과 방황에 얹매이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21) 여기서 “**의의 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이며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서 율법 곧 의의 도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초로 인도하시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개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서 언약의 말씀 곧 의의 도, 율법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의의 도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도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형상에 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의의 도를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의의 도를 몰랐는데, 이제 의의 도를 알고 그 길로 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의의 도를 알게 되었음을 말하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의의 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의 도를 따라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